

# 화산과 지진

글 | 송지혜

그림 | 지동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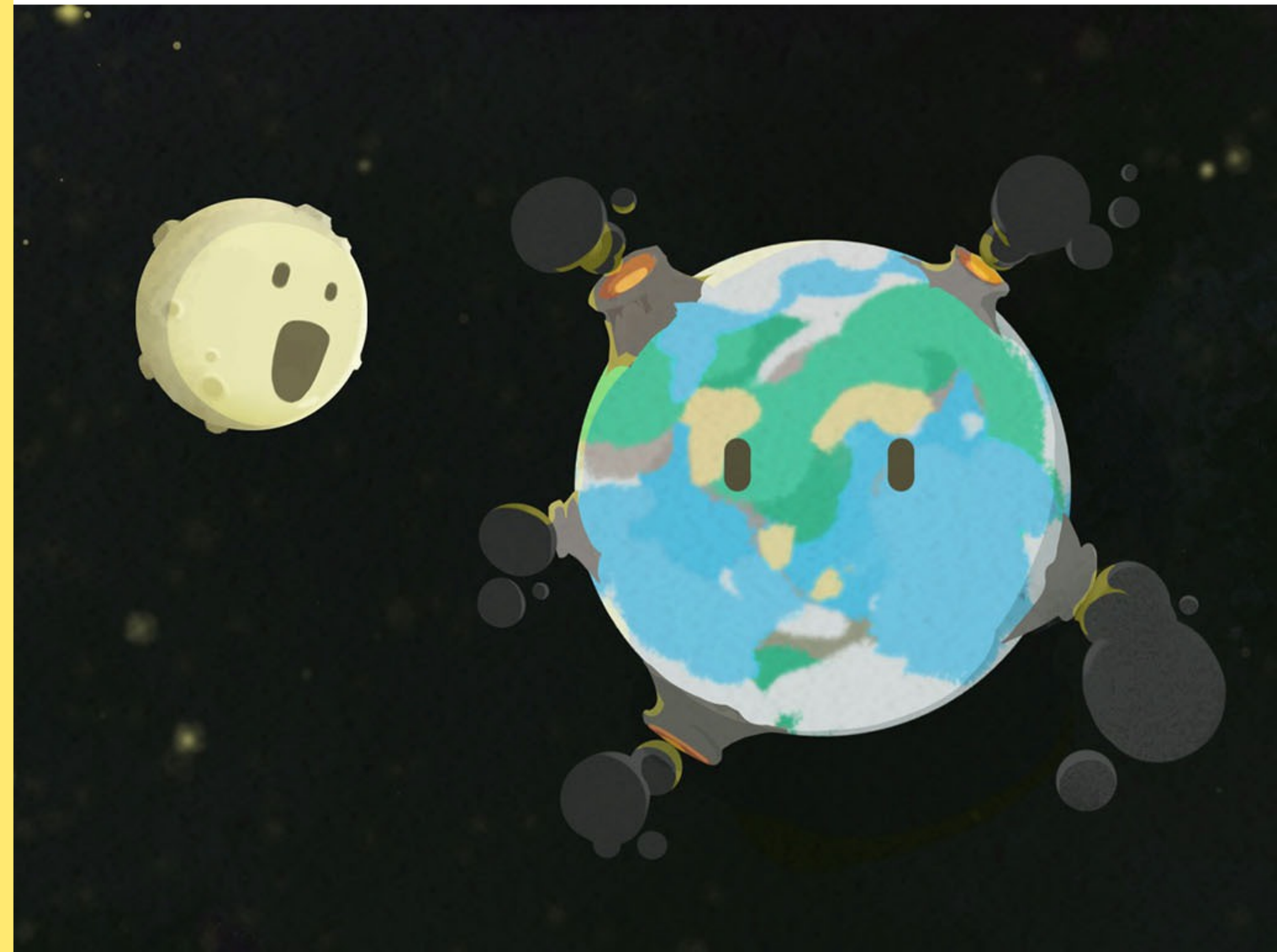
글 | 송지혜

그림 | 지동환

편집 | 김은파, 이수인, 이정아

편집 디자인 | 이해명

목소리 | 윤성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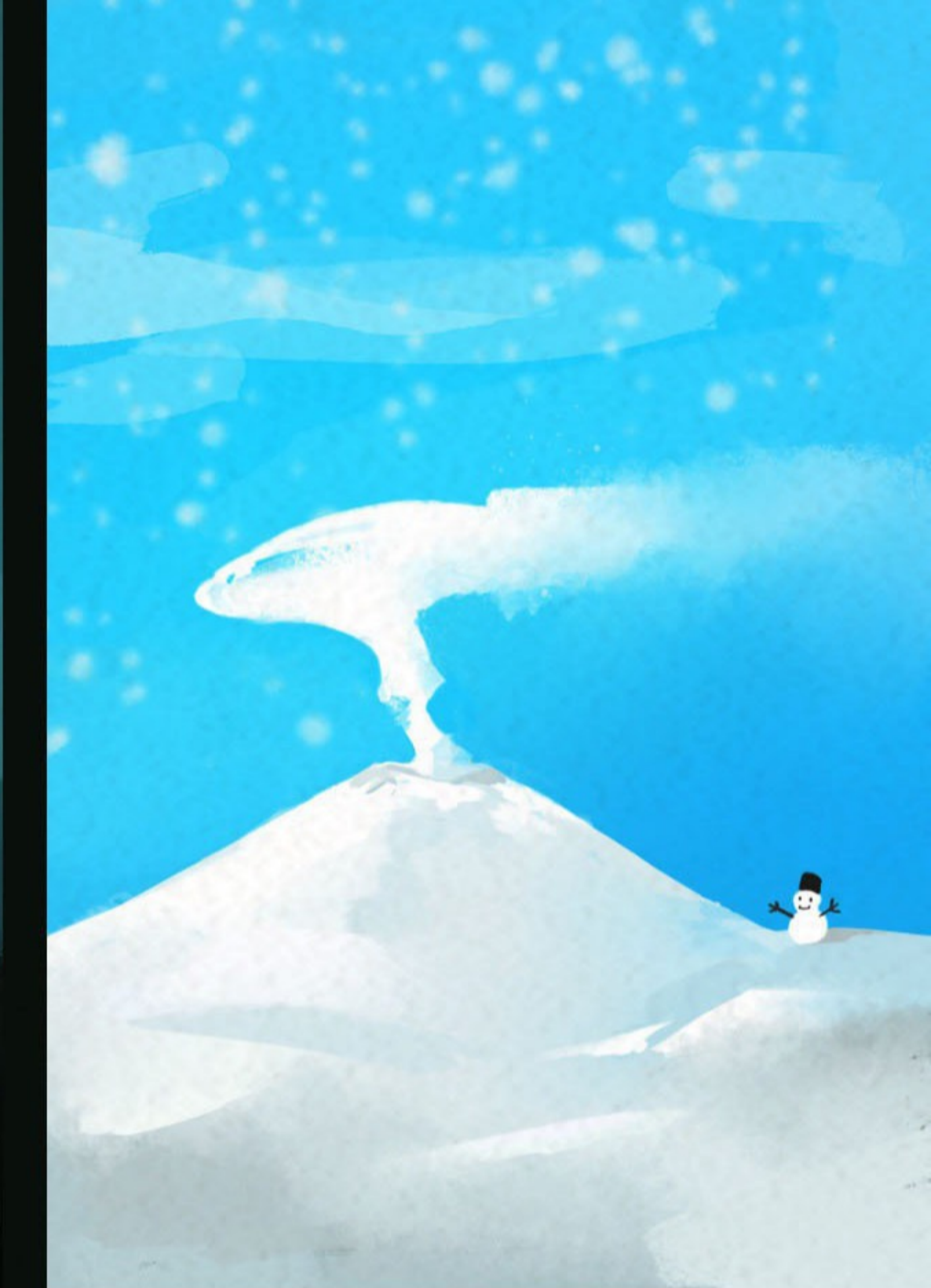




여기서 쿵쿵! 저기서 쿵쿵쿵쿵!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내 속을 들여다보면 왜 이리 땅이 움직이고 들썩이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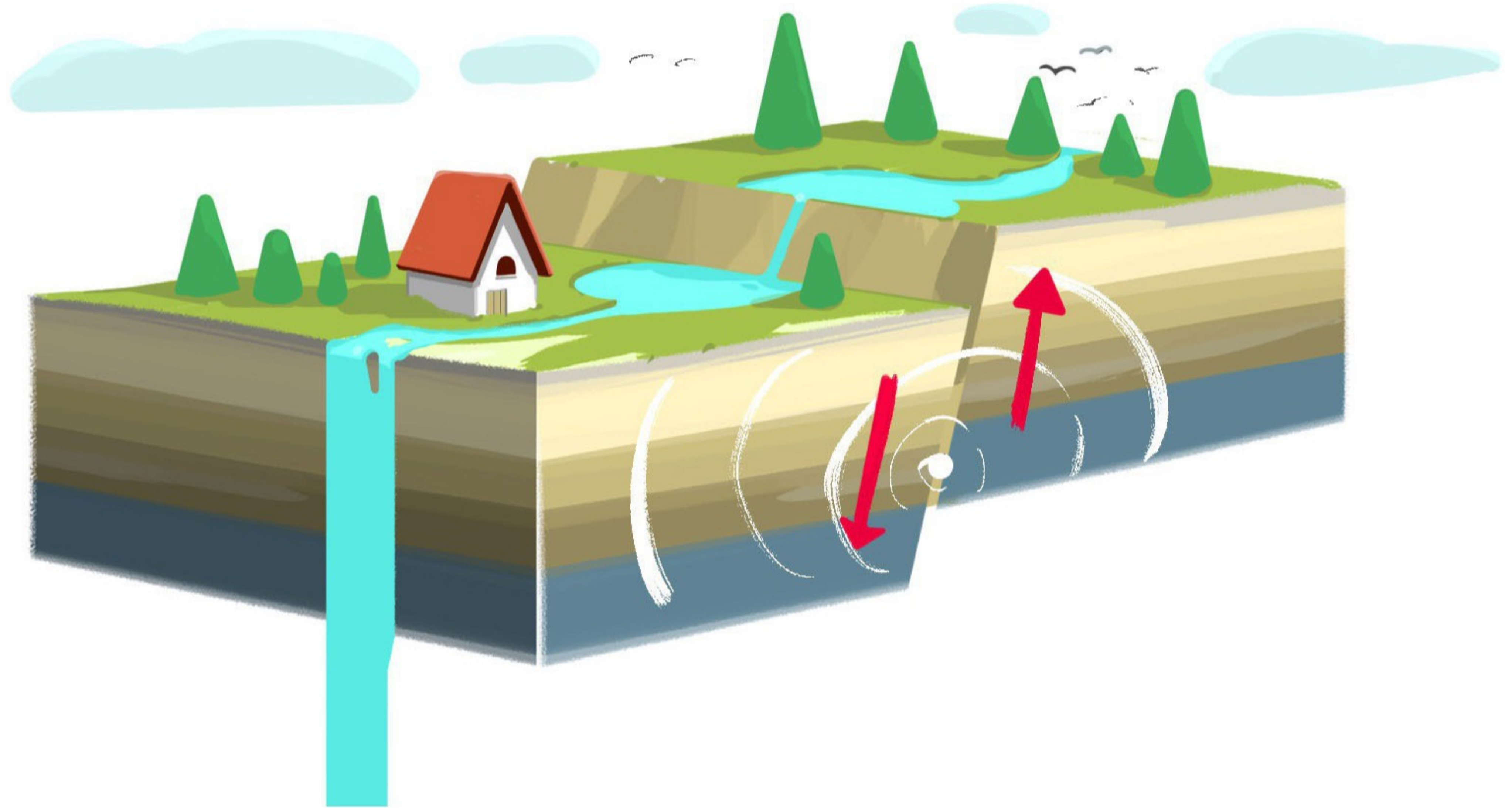
땅속으로 아주 깊숙이 들어가면 아주아주 뜨거운 불덩어리가 흐르고 있어요. 이 불덩어리는 땅 위로 솟구쳐 나오기도 하는데,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땅의 모양을 ‘화산’이라고 합니다.



화산은 땅뿐만 아니라 바다 깊은 곳, 심지어 얼음으로 뒤덮인 남극에도 있어요. 화산이 폭발하면 뜨겁고 새빨간 용암이 흘러내리고 주변이 온통 가스와 회색 가루로 뒤덮이지요.



화산 폭발은 순식간에 수많은 동식물의 생명을 앗아가는 무서운 자연재해예요. 하지만 땅속을 연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도 한답니다. 또 화산 폭발 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 주변은 관광지가 되기도 하지요.



찌저적! 땅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지구 표면에는 자갈, 모래, 진흙 등이 층층이 쌓여 있는데, 이 층이 오랫동안 큰 힘을 받으면서 끊어지거나 휘어지기도 합니다. 그 충격으로 땅이 흔들리는 것을 ‘지진’이라고 해요.



사람들이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약한 지진도 있지만, 강한 지진은 집이나 건물, 다리 등을 순식간에 무너뜨리지요. 땅을 갈라놓거나 솟아오르게 하고, 또는 물 밑으로 가라앉히는 등 땅 모양을 바꾸어 버리기도 해요.



지진이 일어났을 때 최대한 피해를 줄이는 방법을 미리 알아둬야 해요.

첫째, 최대한 머리를 보호할 것.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불을 꺼둘 것. 셋째, 문이 뒤틀려 안 열릴 수 있으니 미리 열어 둘 것. 넷째, 물건이 쓰러지거나 떨어지지 않는 곳으로 이동할 것. 다섯째, 엘리베이터는 위험하므로 계단으로 빠르게 대피할 것.





지진과 화산 활동은 사람들을 두렵게도 하지만 지구가 생기면서부터 계속되어 온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구인 나의 활동을 잘 관찰하고 대비하면서 함께 살아 주길 바라요.

“화산과 지진” is licensed under CC BY 4.0 by Enuma, Inc. & The Foundation SeeArt for Book Culture. To view a copy of this license, visit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4.0/>.

© 2019 by Enuma, Inc. & The Foundation SeeArt for Book Culture